전남도·교육청 농어촌 교육 활성화 손잡았다

우수교원 확보·대입 특별전형 확대 등 11개안 정부에 건의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24일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공교육 활성화 및 우수교원 확보, 학부모 부담 경감 등 3개 분야 11개 개선안을 발굴해 교육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광양만권을 교육 국제화 특구로 시범 지정해 집중 개발해 줄 것도 요청했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농어촌학교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 농어촌 특별전형 비율을 4%에서 8%로 확대하고, 내국세 10% 수준의 농어촌 교육 특별회계 설치와 농어촌 및 도서벽지 화상교육 시스템 설치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농어촌 우수교원 확충 방안으로 학급수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배정하고 농어촌 교원양성 교육대학을 설립해 주도록 건의했다. 특히 전남 농어촌 지역 교원 사택 가운데 47.8%(1천216동)가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으로 776동에 대한 개보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 전남도내 180개 소규모 중·고교의 교사 결원이 234명에 달하고 겸임 순회교사 372명, 타교과 지원교사 86명 등으로 나타나 교원 신규배치도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농어촌 지자체와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용지 부담비율을 현행 50%에서 25%로 하향조정하고, 도서벽지·농어촌 학교 급식지원단가를 학생 수에 따라 현실화해 주도록 건의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농어촌 영어체험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김동현 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은 "갈수록 심화되는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방공동화의 원인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촌 교육활성화가 시급하다"며 "농어촌 교육현장 문제를 중심으로 건의한 개선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영차! 정신장애는 없다" 한국정신요양협회 광주지회 주관으로 24일 오후 광주시 서구 염주동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정신장애 극복 한마음 축제'에서 참가자들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0년만에 탄생한 보수 정권

이 대통령 5·18 기념식 올까

올 5·18 민중항쟁 28주년 기념식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년만에 탄생한 보수정권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따라 기념식 위상이 재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는 이 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석은 오는 5월 1일 열리는 차관회의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훈처는 이 대통령의 참석을 전제로 한 계획안을 차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 1997년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기념식에 참석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기간 5년 동안 매년 참석했었다.

5·18 단체들은 이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5·18의 전국화와 관련, 필수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보수정당에서 탄생한 새 정부 대통령의 참석은 5·18을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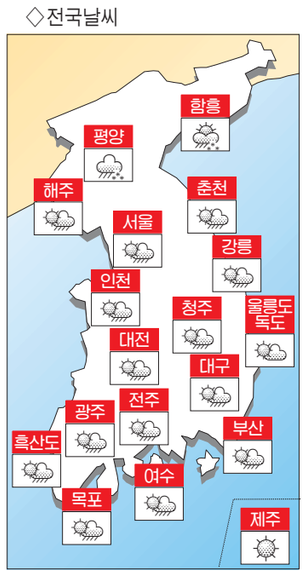
쌀쌀한 봄비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오겠다.

4월 25일 (음 3월 20일) 날씨

◇전국날씨

광 주	흐려져 밤부터 비	7~22℃
목 포	흐려져 밤부터 비	8~20℃
여 수	흐려져 밤부터 비	10~18℃
완 도	흐려져 밤부터 비	7~20℃
구 례	흐려져 밤부터 비	4~23℃
해 남	흐려져 밤부터 비	5~21℃
장 흥	흐려져 밤부터 비	4~21℃
고 흥	흐려져 밤부터 비	6~20℃
순 천	흐려져 밤부터 비	5~23℃
영 광	흐려져 밤부터 비	6~20℃
진 도	흐려져 밤부터 비	7~23℃
전 주	흐려져 밤부터 비	6~22℃
남 원	흐려져 밤부터 비	3~22℃
흑산도	흐려져 밤부터 비	9~17℃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5~3.0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5~4.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3.0m

목 포 밀물〈 04:49 16:34 썰물〈 10:04 21:51
여 수 밀물〈 11:18 23:58 썰물〈 05:33 17:13

▲해뜸 05:48 ▲해짐 19:13 ▲달뜸 23:54 ▲달짐 08:2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6(토)	27(일)	28(월)	29(화)	30(수)	5/1(목)
날 씨						
최저/최고	10/17	8/23	9/25	12/26	14/27	14/27

"U대회 유치 기원 함께 걸어요"

내일 시민화합 걷기대회

광주시새마을회(회장 김동기)는 오는 26일 오전 8시30분부터 광주시 서구 화정동 염주종합실내체육관 정문 옆 놀이마당에서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기원 함께해요! 빛고을 시민화합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광주일보와 광주시, 2013 광주유니버시아드유치위원회, 광주시체육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다음달 1~5일 광주를 방문하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을 열렬히 환영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열기를 모으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기초질서지키기 등 '빛고을 사랑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걷기대회는 놀이마당~원광대한방병원~월드컵경기장 주변 4.6km 구간에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에게는 대회가 끝난 뒤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도 제공한다. 문의는 광주시새마을회(062-361-4680, 4681).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식품비 이외 학교급식 인건비·운영비

"학부모 부담 불합리하다"

양혜령 광주시의원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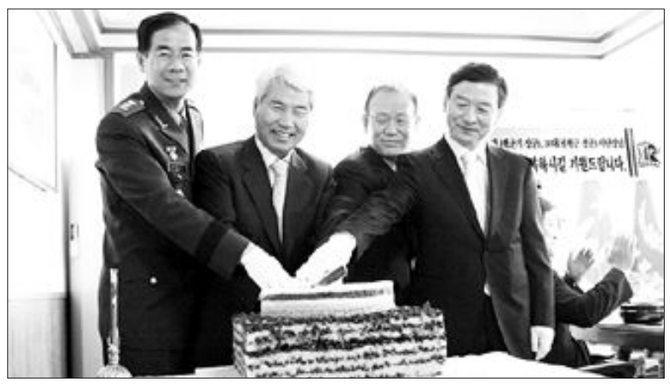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중 식품비 외에 조리원 인건비와 전기·수도·연료비 등 운영비까지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급식비 인상이 조리원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 상승을 충당하는데 맞춰지다보니 학교 급식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광주시의회 양혜령 의원은 25일 열리는 제167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학교급식비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 수준에 불과한 데다, 학부모들이 식품비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에 따른 운영비(조리원 인건비, 전기·수도료, 연료비·소모품비 등)까지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영천초·문우초·광주남초·화정중·운남중·두암중·전남여고·세종고 등 7개 학교의 급식비 내역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내는 급식비(한끼 평균 1천800~2천600원)중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0~77%(단가 1천390~1천820원)에 그쳤다. 이외 인건비는 15~23%(단가 260~550원)를 차지했고, 운영비의 경우 7~10%(170~240원)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종천 시의원은 광주지역 220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다음달 6일부터 9일까지 단기방학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 "석가탄신일 등 연휴까지 포함하면 방학 기간이 9일에 이르지만 저소득층, 맞벌이 부모 자녀와 일부 교사들은 등교해야 한다"면서 "결국 학생, 부모, 교사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교육 계획인데, 가족들이 필요할 시기에 맞춰 재량껏 사용토록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건비와 운영비를 급식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광주의 경우 식품비만 학부모가 부담토록 했을 때 28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일시적인 처리는 재정 여건상 어렵고 단계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서길원 31사단장〈맨왼쪽〉과 역대 지휘관들이 24일 오전 부대창설 53주년 기념식을 마친 뒤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육군 31사단 제공〉

육군 31사단 창설 53주년 기념행사

육군 31사단은 24일 오전 부대 연병장에서 부대창설 5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역대 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식후 행사로 특공무술 시범, 군악대 마칭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다.

31사단은 지난 1월 그동안 광주·전남지역의 향토방위 수호와 해안경계 임무를 위해 노력한 결과 통합방위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최근까지 대통령 부대표창 15회를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또 부대개방행사 및 환경정화활동 등 다양한 대민지원활동을 펼쳤다. /최권일기자 cki@

곡성 '범죄없는 마을' 명성 또 과시

22곳 선정… 7년 연속 최다

곡성군이 '범죄없는 고장'의 명성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광주지검은 24일 광주시·전남도와 함께 '2007년도 범죄없는 마을' 34곳을 선정했다. 이중 3분의 2인 22곳이 곡성군에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화순 4곳, 구례 3곳, 장성·장흥·보성·순천·여수가 1곳씩이었다.

곡성군은 '2006년도 범죄없는 마을'에도 42곳 중 27곳을 차지하는 등 최근 7년 연속 범죄없는 마을 최다 배출 기록을 잇고 있다.

이처럼 곡성군에 범죄없는 마을이 많은 것은 범죄 발생률이 낮은 영향도 있지만 범죄없는 마을 홍보팀이 구성될 만큼 이 지역에서 홍보활동이 활발해 많은 마을이 선정사업에 신청하기 때문이라고 광주지검 관계자는 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